

※※※ 알림글 ※※※

티스토리 블로거 “차삐라” 입니다.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중심으로
AFC챔피언스리그,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 클릭하면 블로그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각 페이지 하단에 원본 주소가 있으며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J.LEAGUE™ NEWS



©J.LEAGUE PHOTOS

2위로 맞이했던 마지막 라운드 카시마전에 승리해, 극적인 우승을 장식한 히로시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않는 싸움이 결실을 맺었다.

산프레체히로시마가 2연패, 2번째 우승

中村俊輔(요코하마F마리노스)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 감바오사카, 빗셀코베, 토쿠시마보르티스가 J1승격

2013시즌 J1리그전이 12월7일에 종료돼, 산프레체히로시마가 2연패, 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마지막 라운드 34R를 앞두고 선두인 요코하마F마리노스, 2위 히로시마, 3위 카시마엔틀러스에 우승 가능성이 있어, 3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얻은 히로시마가 타이틀을 획득했다. J2리그전은 우승 감바오사카, 2위 빗셀코베가 J1에 자동승격. 4위 토쿠시마보르티스가 8일에 개최된 J1 승격플레이오프를 제압하고, 시코쿠로서는 첫 J1클럽이 됐다. 10일에는 「2013 J리그어워즈」가 열려, 요코하마FM의 MF 中村俊輔가 최우수선수상을 획득. J리그 사상 첫 2번째 수상을 했다. (2~6페이지 관련기사)

J.LEAGUE™ TOP PARTNERS

J.LEAGUE™ 100 YEAR VISION PARTNER 朝日新聞	J.LEAGUE™ FAIRPLAY PARTNER 東京エレクトロン	LEAGUE CUP SPONSOR ヤマサキパピコ	SUPER CUP SPONSOR FUJI XEROX	EQUIPMENT PARTNER adidas	OFFICIAL SUPPLIER Johanna-Johanna	J.LEAGUE™ OFFICIAL BROADCASTING PARTNER スカパー!	SPORTS PROMOTION PARTNER TOTO	J.LEAGUE™ OFFICIAL TICKETING PARTNER ぴ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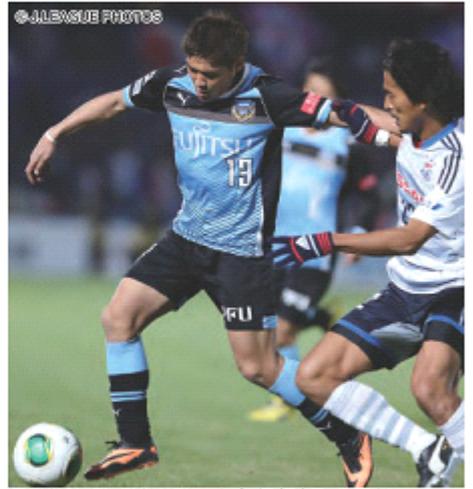
編集・発行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J.LEAGUE DIVISION 1

마지막 라운드 드라마. 상위대결 3카드에 우승,ACL출전권이 걸리다.



카시마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히로시마 石原(우), 시합중반에도 귀중한 추가골을 넣었다. 왼쪽은 카시마 中田



득점왕이 된 카와사키F 大久保(좌)를 막히는 요코하마FM 中澤. 마지막에서 양팀 명암이 갈렸다.



C오카사 谷는 우라와전에서 2골. ACL출전에 희망을 이었다.

J1리그전은 마지막인 34R를 앞두고, 선두 요코하마F마리노스, 2위 산프레체히로시마, 3위 카시마엔틀러스등 3팀에게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거기에 3위 이상의 AFC챔피언스리그(ACL)출전권 획득을 노리며, 4~6위 우라와레즈,카와사키프론타레,세레소오사카가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기하게도 카와사키F vs 요코하마FM, 카시마 vs 히로시마, 우라와 vs C오카사 상위대결에 의한 드라마틱인 끝을 맺었다.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에서는 우승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대조건인 카시마와 히로시마가 대결했다. 35분에 균형을 깬 것은 요코하마FM을 승점 2점차로 쫓는

순위표

順位	팀	경기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점차
1	산프레체히로시마	63	34	19	6	9	51	29 +22
2	横浜F・マリノス	62	34	18	8	8	49	31 +18
3	川崎フロンターレ	60	34	18	6	10	65	51 +14
4	セレッソ大阪	59	34	16	11	7	53	32 +21
5	鹿島アントラーズ	59	34	18	5	11	60	52 +8
6	浦和レッズ	58	34	17	7	10	66	56 +10
7	アルビレックス新潟	55	34	17	4	13	48	42 +6
8	F C東京	54	34	16	6	12	61	47 +14
9	清水エスパルス	50	34	15	5	14	48	57 -9
10	柏レイソル	48	34	13	9	12	56	59 -3
11	名古屋グランパス	47	34	13	8	13	47	48 -1
12	サガン鳥栖	46	34	13	7	14	54	63 -9
13	ベガルタ仙台	45	34	11	12	11	41	38 +3
14	大宮アルディージャ	45	34	14	3	17	45	48 -3
15	ヴァンフォーレ甲府	37	34	8	13	13	30	41 -11
16	湘南ベルマーレ	25	34	6	7	21	34	62 -28
17	ジュビロ磐田	23	34	4	11	19	40	56 -16
18	大分トリニータ	14	34	2	8	24	31	67 -36

히로시마의 MF石原直樹. 石原는 80분에도 추가골을 넣어, 히로시마가 2-0 승리를 얻었다. 약간 늦게 종료된 시합에서 요코하마FM이 패해, 승점에서 앞선 히로시마의 2연패가 결정됐다. 남은 2라운드 시점에서는 요코하마FM과 승점차가 5로 벌어진것에, 森保一감독은 「우승을 믿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않는 마음으로 싸운 것이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패한 카시마는 5위로 순위가 떨어져, ACL출전권 획득도 놓쳤다.

요코하마FM은 33R,홈에서 알비렉스리가 타전에 승리하면 9년만에 우승이 결정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닛산스타디움에 리그전에서 사상최다가 된 6만2632명 입장객을 모은 경기에서 0-2로 패배. 이기면 우승인 마지막 카와사키F전에도 0-1로 패해, 29R부터 지킨 선두자리를 넘겨줬다. 한편 카와사키F는 이 승리로 3위로 부상해, ACL출전권을 획득. 올시즌 통산 26골을 올린 FW大久保嘉人が 첫 득점왕이 됐다.

ACL출전권을 걸고 싸운 우라와와 C오카사 대결은 FW柿谷曜一朗 2골 등으로 C오카사가 5-2 승리. 리그전 순위는 4위로 올라가, 93회 일왕배 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에서 히로시마,요코하마FM, 카와사키F 중 아무나 우승하면 일찍히 ACL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또 쇼난벨마레,주빌로이와타,오이타트리니타 3팀이 강등돼, 내년 시즌은 J2에서 싸우게 됐다

히로시마 우승에 대한 大東和美에어맨 코멘트

리즈 2연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시즌 리그전은 마지막까지 우승다툼이 워혀져, 매우 흥미로운 전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3클럽에게 우승 가능성이 있고, 또 상위 클럽에게 ACL에 출전도 걸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히로시마가 우승으로 시합을 끝매져, 훌륭히 정점에 섰습니다. 각 클럽 팬,서포터는 목이 마르면서 시합 상황을 지켜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올시즌 히로시마는 FUJI XEROX SUPER CUP 우승으로 시작해, 리그전에서도 초반부터 안정된 싸움으로 우승을 거둬해 왔습니다. 리그 2연패라는 결과는 실로 팀 집대성으로 짐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J리그는 올해 리그 개막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1993년 J리그 시작부터 있는 히로시마가 리그 20주년 역사에 이름을 새김에 어울리는 당당한 싸움으로 우승을 한 것에,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또 1993년에 히로시마에서 선수로서 피치에서, 그후 도하 비극과 각자의 J클럽을 경험한 森保一감독이 같은 히로시마에서 리그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한 것은, 만감이 있으며, 그 실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감독, 선수, 팀스텝, 클럽 관계자는 물론, 연고지 히로시마시를 비롯한 많은 팬,서포터,산프레체히로시마를 1년간 열렬히 지지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득점 랭킹 상위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득점
1	大久保 嘉人	川崎F	26	7	渡邊 千真	F東京	17
2	川又 堅碁	新潟	23	7	佐藤 寿人	広島	17
3	柿谷 曜一朗	C大阪	21	9	マルキーニョス	横浜FM	16
4	豊田 陽平	鳥栖	20	10	ウイルソン	仙台	13
5	大迫 勇也	鹿島	19	10	興梠 慎三	浦和	13
5	工藤 壮人	柏	19				

J.LEAGUE DIVISION 2

감바오사카가 우승 2위는 빗셀코베



41R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G오사. 아시아제패 실적도 있는 강호가 1년만에 J1 복귀를 해냈다.

J2리그전은 관사시세가 리드해, 1~3위를 감바오사카, 빗셀코베, 교토상가F.C.가 점했다. 우승한 것은 첫 J2에서 짝은 G오사카. 우선 39R 로아소쿠마모토전에서 자 동승격 조건의 하나인 2위내 이상이 확정. 42R 몬테디오야마가타전에서 5연승을 거둬, 우승을 결정지었다. MF 遠藤保仁, DF 今野泰幸 등 중심 선수가 SAMURAI BLUE(일본대표) 해외원정으로 부재일 때도 안정된 성적을 남겼다. 7월에 해외 클럽에서 복귀한 MF 宇佐美貴史는 18시합에서 19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보여, 팀 상승세를 이었다. 올 시즌부터 지휘를 잡은 長谷川健太 감독은 「1년을 통해 J1복귀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싸운 결과」라고 말했다.

2위가 돼 역시 1년만에 J1 복귀를 한 J

1 복귀를 한 것이 코베. 전반기는 2~15R에서 선수를 지키며, 후반기도 35~38R에서 선두로, G오사카와 경쟁했다. 2위 이상을 확정지은 것은 40R. 安達亮 「선수도 스태프도 매우 좋은 일을 해주었다. 결과로서 만족」이라며 회상했다.



코베도 1년만에 J1복귀 (마지막 쿠마모토전)

순위표

順位	チーム	勝点	試合	勝	引分	敗	得失点	得失差
1	ガンバ大阪	87	42	25	12	5	99	46+53
2	ヴィッセル神戸	83	42	25	8	9	78	41+37
3	京都サンガF.C.	70	42	20	10	12	68	46+22
4	徳島ヴォルティス	67	42	20	7	15	56	51+5
5	ジェフユナイテッド千葉	66	42	18	12	12	68	49+19
6	V・ファーレン長崎	66	42	19	9	14	48	40+8
7	松本山雅FC	66	42	19	9	14	54	54+0
8	コンサドーレ札幌	64	42	20	4	18	60	49+11
9	栃木SC	63	42	17	12	13	61	55+6
10	モンテディオ山形	59	42	16	11	15	74	61+13
11	横浜FC	58	42	15	13	14	49	46+3
12	ファジアーノ岡山	56	42	13	17	12	52	48+4
13	東京ヴェルディ	56	42	14	14	14	52	58-6
14	アビスパ福岡	56	42	15	11	16	47	54-7
15	水戸ホーリーホック	55	42	14	13	15	50	58-8
16	ギラヴァンツ北九州	49	42	13	10	19	50	60-10
17	愛媛FC	47	42	12	11	19	43	52-9
18	カタレ富山	44	42	11	11	20	45	59-14
19	ロアッソ熊本	43	42	10	13	19	40	70-30
20	ザスパクサツ群馬	40	42	9	13	20	43	61-18
21	FC岐阜	37	42	9	10	23	37	80-43
22	ガイナレ鳥取	31	42	5	16	21	38	74-36

J1승격플레이오프 출전인 3~6위를 노린 경쟁은 교토가 39R에서 6위이상을 확정 한 후, 마지막 42R을 앞두고 5팀이 다 뒀다. 마지막은 토쿠시마보르티스가 V파 렌나가사키에 이겨, 4위로 부상. 패한 나가사키도 6위를 확정했다. 가이나레토토리와 대결한 제프유나이티드치바는 후반 추가시간 2분에 동점골로 무승로 5위를 지켰다. 마쓰모토야마가FC는 치바, 나가사카와 승점에서 같지만 득실차에서 7위, 이기면 5~6위가 확정되는 콘사도레삿포로는 기라반스키타큐슈와 비겨 8위로 끝나, 조금 미치지 못했다.

득점 랭킹 상위

順位	選手	所属	得点数	順位	選手	所属	得点数
1	ケンベス	千葉	22	4	水水	神戸	16
2	宇佐美 貴史	G大阪	19	4	小川 慶治朗	神戸	16
3	内村 圭宏	札幌	17	8	津田 知宏	徳島	14
4	サビア	栃木	16	9	平塚 龍一	群馬	13
4	クリスティアーノ	栃木	16	9	レアンドロ	G大阪	13

2013 J.LEAGUE ROAD TO J1 PLAY-OFFS

토쿠시마보르티스가 승격. 시코쿠 첫 J1 클럽에

J2승격플레이오프 준결승이 12월1일, 결승이 8일에 개최돼, 토쿠시마보르티스가 J리그 입회 9년째에 클럽사상 첫 승격을 해냈다. J2 리그에서 4위 토쿠시마는 국립경기장이 무대가 된 결승에서 3위 교토상가F.C.를 2-0으로 제쳤다. 시코쿠 클럽이 J1으로 승격한 것도 첫음이 된다.

토쿠시마는 초반, 교토에 밀렸지만 39분에 DF 千代反田 充가 선제골, 4분후에는 FW 津田知宏가 추가골을 넣었다. 4년만에 J1복귀를 노렸던 교토는 슈팅수 13-4로 앞섰지만, 골네트를 흔들지 못했다. 토쿠시마의 小林伸二 감독이 「오늘 게임은 정말 과분할 정도로 선수들이 잘해주었다」라며 승리를 평했다.



※ 무승부의 경우는, 연승순위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승순위가 상위 클럽을 우승으로 한다.

J2-JFL 승강전

카타마레사누키가 J2 승격을 확정

폼&어웨이에 의한 J2-JFL 승강전이 12월1,8일에 열려, JFL 2위 카타마레사누키가 J2 승격을 결정지었다. J2에서 22위인 가이나레토토리와 대전한 사누키는 홈 1차전을 1-1로 비긴 후 원정 2차전을 1-0으로 승리해, 통산 성적 1승1무가 됐다. 패한 토토리는 JFL로 강등되지 않고, 내년 시즌은 신설된 J3에 무대를 옮기게 됐다.

1차전에서 쫓기며 비긴 사누키는 2차전에서 20분에 FW 高橋泰가 2시합 연속 선제골. 그 후 토토리 반격을 받아 수세로 돌아섰지만, 이 1골을 지켜냈다. 카가와현 출신의 사누키의 北野誠 감독은 「카가와현에 J리그 클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달성해 기쁘다」고 기쁨을 말했다.



[J2-JFL 승강전]
1차전 사누키 1-1 토토리
2차전 토토리 0-1 사누키

서포터와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누키 선수들



2013 J.LEAGUE™ AWARDS

中村俊輔(요코하마FM)가 최우수선수상

13년만에 영예. 2번 수상은 사상 처음



올시즌 J리그를 마무리하는 「2013 J리그 어워즈」가 12월10일,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아리나에서 개최됐다. 2013시즌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선수와 감독,클럽,심판등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스테이지위에 히로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물려든 팬,서포터가 큰 박수와 환호성을 축하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MF中村俊輔가 뽑혔다.



최우수선수상 시상자를 맡은 佐藤真海州(우)와 中村. 연설은 「솔직히 기쁘다」 「감사한 마음」이라며 감사를 말했다



명예 시상상을 앞두고 인사를 하는 大東체어맨



J리그컵(우승쟁반) 챔피언클럽을 들고,명량한 표정으로 무대위에 선 히로시마 얼굴들



최우수감독상은 DSLR이 부상으로. 수상한 森保감독(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선수들을 칭찬했다.

역대최고령 최우수선수상

오이타트리니마,주빌리아와타 순서로 시작해, 카와사키프론탈레,요코하마F마리노스로 이어져 입장한 J1 17클럽 선수들이 앉자, 드디어 올 시즌 챔피언이 된 산프레체히로시마의 선수들이 등장. 森保一감독,J리그컵(우승은쟁반)을 들고 주장 FW佐藤寿人を 선두로,중앙무대로 나섰다.

일본축구협회(JFA) 大仁邦彌회장으로부터 J1우승클럽 시상을 한 후 J리그 大東和美체어맨이 등장해 인사를 했다. 올 시즌을 되돌아본 후 「20년 역사를 거쳐 J리그는 지금 커다란 시기. J리그는 더욱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간다」라고 강력히 연설.팬,서포터,파트너 각사. 미디어 관계자에게 1년동안의 감사를 전했다.

ジョンカピラ,石山愛子 두사람이 세레모니를 진행하고, 올 시즌 J리그를 장식한 「얼굴」라고할수 있는 선수들이, 속속 수상했다. 수상자는 명량한 표정으로 무대에서,주위에 감사말을 전했다. 클라이막스는 시상 마지막인 2013 시즌 최우수선수상 발표. 이 상의 시상자를 맡은 런던패럴올림픽 여자육상 일본대표인 佐藤

원본다운
클릭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2/vo10212.pdf>

「2013 J리그어워즈」 수상 일람 (동그라미 숫자는 수상횟수)

최우수선수상	中村 俊輔 (横浜FM, ②)
(GK)	西川 周作 (広島, ②)
(DF)	那須 大亮 (浦和, 初) / 森重 真人 (F東京, 初) 中澤 佑二 (横浜FM, ⑥)
베스트일레븐	(MF) 中村 俊輔 (横浜FM, ③) / 山口 螢 (C大阪, 初) 柿谷 曜一朗 (C大阪, 初) / 青山 敏弘 (広島, ②)
(FW)	大迫 勇也 (鹿島, 初) / 大久保 嘉人 (川崎F, 初) 川又 堅基 (新潟, 初)
득점왕	大久保 嘉人 (川崎F, 初)
베스트영플레이어상	南野 拓実 (C大阪)
최우수골상(신설)	柿谷 曜一朗 (C大阪, 初)
페어플레이상	高円宮杯/フレツチエ広島 ③
페어플레이상(J1)	ベガルタ仙台 初 (J2에서 ②)
페어플레이상(J2)	ガンバ大阪 初 (J1에서 ①, 高円宮杯 ③) / 松本山雅FC 初 ヴィッセル神戸 初 (J1리그에서 高円宮杯 ①) / ファジアーノ岡山 初
페어플레이 개인상	柿谷 曜一朗 (C大阪, 初) / 佐藤 寿人 (広島, ③)
최우수감독상	森保 一 (広島, ②)
최우수주심상	西村 雄一 ⑤
최우수부심상	相樂 亨 ⑧
J리그베스트피치상	キンチョウスタジアム ② / IAIスタジアム日本平 ① 埼玉スタジアム2002 ③ / 東北電力ビッグスワンスタジアム ④
공노선수상	中山 雅史 / 土肥 洋一 / 服部 公太
최우수육성클럽상	セレッソ大阪

※ 공노상, 공노심파산상은 해당지없음

2013시즌 J리그전 월간베스트골

3월	第2節	中村 俊輔 (横浜FM)	3월 9일	vs 清水	得点時間: 8
4월	第8節	柴崎 岳 (鹿島)	4월 27일	vs 新潟	得点時間: 6
5월	第13節	柿谷 曜一朗 (C大阪)	5월 25일	vs 名古屋	得点時間: 67
7월	第16節	齋藤 学 (横浜FM)	7월 13일	vs 大宮	得点時間: 36
8월	第21節	中村 俊輔 (横浜FM)	8월 17일	vs F東京	得点時間: 89
9월	第27節	佐藤 寿人 (広島)	9월 28일	vs 鳥栖	得点時間: 23
10월	第30節	中村 俊輔 (横浜FM)	10월 27일	vs 大分	得点時間: 45
11월	第33節	柿谷 曜一朗 (C大阪)	11월 30일	vs 鹿島	得点時間: 38
12월	第34節	石原 直樹 (広島)	12월 7일	vs 鹿島	得点時間: 35

※ 6월은 J1 개최없음

※ 은 최종도미네이트골



베스트일레븐에 빛나는 선수들. 앞열 왼쪽부터 川又, 大迫, 大久保, 青山 중열 왼쪽부터 柿谷, 中村, 山口. 뒷열 왼쪽부터 森重, 那須, 中澤, 西川



©JLEAGUE PHOTOS

득점왕에 빛난 大久保는 꾸준히 골을 넣어 팀을 3위로 끌어올렸다.



©JLEAGUE PHOTOS

부상인 고급 손목시계를 손에 넣은 베스트영플레이어 상의 南野(좌). 올시즌은 리그에서 첫득점도 마크



©JLEAGUE PHOTOS

우수선수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빅맥 1년분. 우 리와 MF 阿部勇樹(좌)가 32명을 대표해 받았다.



©JLEAGUE PHOTOS

신설된 최우수골상은 柿谷(좌)가 획득. 「캠릿츠바사」로 친근한 만화가 高橋陽一가 시상자

真海씨가 발표한 이름은 요코하마FM의 MF中村俊輔. 2000년에 이어 2번째 영예와 J리그 사상 첫 쾌거로, 35세는 10년의 樫崎正剛등 3명의 34살을 넘은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됐다.

요코하마FM은 J리그어워즈 3일전에 열린 리그전 마지막에 우승을 놓치며, 아쉽게도 준우승에 만족했다. 그렇지만 전체 34R 중 최다인 18R에 선두에 서며, 계속 4위 이상을 유지하는등 안정된 싸움. 그 팀이 있어 中村의 리더로서 활약은 출중했다. 정확한 킥을 살린 FK과CK 세트플레이로 다수 득점을 연출하며, 리그에서 10득점은 자신의 1시즌 최다. 한편, 몸을 쓰며 공을 뺏는등, 헌신적인 수비도 선보였다. 「이 상에 부끄럼없는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 축구

계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다」라는 13년 전 수상때의 말로, 연술을 마무리했다.

베스트일레븐 첫 선출은 7명

베스트일레븐은 올시즌 J1에서 17시합 이상에 출전한 선수가 대상이 되는 우수선수 상을 수상한 32명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했다. 첫 선출은 12년과 같이 7명. 올 시즌은 일본인 선수가 득점랭킹 상위를 점하는 활약을 보인 것을 반영해, 득점왕인 FW大久保嘉人(카와사키F) 득점랭킹 2위 FW川又堅基(알비렉스니가타) 3위 MF柿谷曜一朗(C오사카) 5위 타이의 FW大迫勇也(카시마애틀러스)가 기쁜 첫 수상이 됐다.

또 11명이 일본인 선수로 채워진 것은 09년 이후 2번째. 11명 중에서 최다수상은 DF中澤佑二(요코하마FM) 6번으로 5년만에 수상했다. 팀메이트 中村은 2000년에 이어 최우수선수상과 더블수상. J1우승 히로시마에서 GK西川周作, MF青山敏弘가 함께 2년연속이었다.

J1에서 26골을 넣은 大久保는 첫 득점왕. J1에서는 지금까지 자신 최다였던 2003시즌의 16골을 크게 웃도는 활약으로 팀 3위 약진에 공헌. 「훌륭한 상에 부끄럼없도록, 좀더 노력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 줄수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새렘게 했다.

1992년4월2일 이후 태생으로 J1출전 17



高円宮(우)로부터 페어플레이상 高円宮컵을 페어플레이 개인상의 佐藤(우)와柿谷. 상대를 배려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을 유념하고있다고한다.



©J.LEAGUE PHOTOS

서포터스태이지
 J리그어워즈 오프닝에 앞서, 서포터스태이지가 열렸다. 서포터투표에 의해 사전에 뽑힌 「J2 Exciting 22」(각 j2클럽에서 1명씩 선출) 22선수가 등장. 그 중에서 당일 입장자 투표에 의해 결정된 「J2 Most Exciting Player」에, 감바오사카의 MF 遠藤保仁가 빛났다. 또 j2최우수골상에는 도쿄베르디의 19세 MF 中島翔哉가 35R 더스파쿠사츠군마전에서 넣은 골이 뽑혔다.



©J.LEAGUE PHOTOS

J2 Most Exciting Player에 뽑힌 遠藤(좌). 보기 중계 1년만에 G오사카를 J1복귀를 이끌었다.



©J.LEAGUE PHOTOS

최우수주심상을 5년연속해 수상한 西村(좌) 相樂은 최우수부심상을 역대최다인 6번 수상(우)



©J.LEAGUE PHOTOS

공노선수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服部,土肥,中山. 오랫동안 J리그,일본축구에 많은 공헌이 인정됐다.



©J.LEAGUE PHOTOS

최우수육성클럽상 부상이 河野俊嗣 宮崎현지사(우)로부터 C오사카의 岡野雅夫 대표이사 장에게



2013 J리그어워즈 개최장인 요코하마아리나. 기량비가 내리는 중, 열정적인 팬,서포터가 일찍부터 몰려들어 개장을 기다렸다.



©J.LEAGUE PHOTOS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 올시즌 J1,J2 전시함 사진도 전시됐다.



©J.LEAGUE PHOTOS

J리그 오피셜파트너의 전시,프레젠티도 열렸다.



©J.LEAGUE PHOTOS

평소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J리그컵(우승쟁반)등 각종 수상컵을 전시



©J.LEAGUE PHOTOS

동일본대지진,필리핀테풍 피해지원활동 자원이 되는 모금활동을 실시

시합 이상이 대상이 되는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FW 南野拓実(C오사카)손에. 전시즌 3시합(무득점)에서 29시합(5득점)으로 출전기회를 크게 늘렸다.

柿谷가 3부분에서 수상

최우수감독상은 히로시마를 J1에서 2연패로 이끈 森保감독이 손에 넣었다. 「또 이처럼 멋진 무대에 설수있도록, 클럽이 하나가 돼 내년도 싸우고싶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올시즌부터 만들어진 최우수골상을 획득한 것은 柿谷. 팬,서포터 투표를 토대로 선발된 리그 월단 베스트골에서,최종 노미네이트된 5골을 결정. 그 중에서 柿谷가 33R

카시마전에서 넣은 득점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柿谷는 이 상과 베스트일레븐을 더해,페어플레이 개인상도 획득. 원칙으로는 J1에서 경고,퇴장이 없었던 선수가 대상이 되며 「작년(佐藤)寿人が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을 때,나도 내년 받고싶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佐藤은 올해 역대 최다가 되는 3번째 수상이 됐다.

리그전에서 반칙포인트가 34이하의 클럽에게 주어지는 페어플레이상(J1)은 히로시마와 베갈타센다이. 가장 반칙포인트가 적었던 히로시마에게는 JFA 명예중재인 高円宮로부터 高円宮컵이 수여됐다. 반칙포인트가 42이하의 페어플레이상(J2)은 감바오사카,마츠모토야마가FC,빗셀코베,파지아노오카

야마가 수상했다. 최우수주심상,부심상은 각각 西村雄一가 5년연속 5번째. 相樂亨氏가 5년연속 최다가 되는 6번째. J리그베스트피어상은 4경기장. 中山雅史, 土肥洋一, 服部公太 3명이 공노선수상 수상을 했다. 최우수육성클럽상에는 베스트일레븐의 柿谷, MF 山口螢,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의 南野등을 배출한 C오사카가 뽑혔다.

J3리그 대회명칭 및 리그로고에 대해

J리그는 J3리그 대회명칭과 리그로고를 아래처럼 결정했다.

- 대회명칭 J3리그(약칭:J3)
- 대회로고



[참고]

	정식명칭	대회명칭
J1	J1리그	J리그 J1리그전
J2	J2리그	J리그 J2리그전
J3	J3리그	J3리그

J리그 대회심사 (J3) 결과에 대해

J리그는 12월2일에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J3입회를 신청했던 그루자모리오카에 대해, 아래처럼 J리그에 입회를 승인했다. 심사결과 및 클럽 개요는 아래와 같다.

■J3 입회를 신청해, 승인

그루자모리오카 (敬称略)	
법인명	株式会社いわてアスリートクラブ 代表取締役社長: 臼井 康雄
설립	2009年4月10日
소재지	岩手県盛岡市肴町4-20 永卵ビル2F
소속리그	東北社会人サッカーリーグ1部
연고지	盛岡市
홈경기장	盛岡南公園球技場



모리오카에게 J3입회승인을 전하는 J리그 大東啓介

[참고] J3입회 결정클럽 ※2013년 12월17일 현재

- グルージャ盛岡
- ブラウブリッツ秋田
- 福島ユナイテッドFC
- FC町田ゼルビア
- Y.S.C.C.横浜
- SC相模原
- AC長野パルセイロ
- ツエーゲン金沢
- 藤枝MYFC
- ガイナーレ鳥取
- FC琉球
- JFA/Jリーグ U-22選抜チーム(仮称)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J리그는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을 아래처럼 결정했다.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명칭	2014 J3리그
주최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대회방식	3회전 풀리그전 (홈&어웨이+홈 or 어웨이) 전체 33R / 198시합
개최기간	3월9일 (일)~11월23일 (일)
경기장	원칙으로 각 클럽의 홈경기장 ※JFA/J리그 U-22선발(가칭)은 홈경기를 개최하지않고, 대전 팀 홈경기로 시합을 한다.
개최개요	<시합방식 및 승패 결정> 90분간(전후반 각 45분) 시합을 해,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경우는 무승부로한다 <승점> 승리:3점, 무승부:1점, 패:0점 <연간 순위 결정> 리그가 종료된 시점에서, 승점합계가 많은 팀을 상위로하며, 순위를 결정한다. 단, 승점이 같을 경우, 아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득실차 ②총득점수 ③상대간 대전성적 (승점>득실차>총득점) ④반칙포인트 ⑤추첨 ※추첨은 J2승격 팀 결정등, 이사회가 필요로 판단한 경우만 실시된다.
시합엔트리	1팀 16명 이내 (외국인 선수는 2명까지. 단, J리그 제휴 국적을 소유한 선수 1명에 한해, 추가 엔트리)
선수교체	시합중 선수 교체는 5명 이내로 한다.
경고 누적	J3리그에서 경고누적이 4회가 된 경우, 대회 가까운 시합이 출전정지가 된다.
출전자격등록기한	2014년 9월19일(금)

※수상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

[J2, J3 교체]

- J2는 하위 2클럽 (21위, 22위)를 강등권대상으로하며, 1클럽(22위)는 자동강등, 1클럽(21위)는 승강전
- J3은 상위 2클럽을 승격대상으로 하며, 1클럽(1위)는 자동승격, 1클럽(2위)는 승강전
- 승강전에 승리한 팀이 다음 시즌 J2에 소속된다.
- JFL/J리그 U-22선발팀(가칭)은 J2승격대상 제외
- 단 J3상위 2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처럼 된다.
 - J3 1위 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교체는 되지않고, J2 22위와 J3 2위가 승강전
 - J3 2위 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J2 22위와 J3 1위의 자동 교체. 승강전 없음
- J3 리그 1위, 2위 클럽에게 J2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3위 이하의 순위 상승은 없음
- 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1위또는 2위인 경우는 아래처럼 한다
 - ①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1위인 경우
 - J2 22위 클럽은 J3로 강등, J3 2위 클럽이 J2에 승격
 - J2 21위 클럽과 J3 3위 클럽이 승강전
 - ②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2위인 경우
 - J2 22위 클럽은 J3로 강등, J3 1위 클럽이 J2로 승격
 - J2 21위 클럽과 J3 3위 클럽이 승강전
- 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1위, 2위 클럽 또는 3위 클럽이 J2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클럽은 교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J3 4위 이하 클럽이 순위상승이 되지 않는다.

[참고: J3클럽 선수 등록에 대해]

- J3클럽은 시즌을 통해 3명이상 프로계약 선수를 보유하기로 한다.
- J3클럽이 보유할수 있는 외국 선수는 2명까지. 단, J리그 제휴국 국적을 보유하는 서수 1명에 한해, 추가등록 가능하다

2015 시즌 이후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갱신)

J리그는 2015시즌 이후 J1 리그전 대회방식을 아래처럼 결정했다. 9월17일 발표시부터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챔피언십 대회방식등, 미정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2015시즌 이후 J1 리그전 대회방식에 대해

■대회방식

18클럽에 의한 2스테이지제 및 슈퍼스테이지(가칭)과 챔피언십(가칭)

[리그전]

- 각 스테이지 1회전 풀리그전
- 양 스테이지에서 홈&어웨이
- 각 스테이지 17R, 153시합 [양스테이지 합계 306시합]

[슈퍼스테이지(가칭)]

- 각 스테이지 1위팀 및 연간 승점 2위,3위팀(합계 4팀)에 의한, 녹아웃 방식의 토너먼트전 (1회전제)
- 1st스테이지 1위 또는 2nd스테이지 1위 중, 연간승점이 상위인 팀과 연간승점 3위팀, 1st스테이지 1위 또는 2nd스테이지 1위 중, 연간승점이 하위인 팀과 연간승점 2위팀에 의한 1회전을 해, 1회전 승리팀이 2회전에 진출해, 슈퍼스테이지 승리팀을 결정한다.
- 연간승점 1위팀과, 슈퍼스테이지 진출대상 팀이 중복된 경우는 연간승점 1위팀은 챔피언십에 진출하고, 슈퍼스테이지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 각 스테이지 1위팀 및 연간승점 2위,3위팀이 중복된 경우는 각 스테이지 1위팀이 시드받는다.
- 단, 슈퍼스테이지 진출권을 가진 팀이 강등대상이 된 경우는 참가자격이 없다.
- 시합경기장은 스테이지 1위팀을 홈으로 한다.

[챔피언십(가칭)]

- 연간승점 1위팀과, 슈퍼스테이지 승리팀에 의한 대전(시합방식 및 시합수는 검토중. 결정되는 대로 발표)

■연간순위 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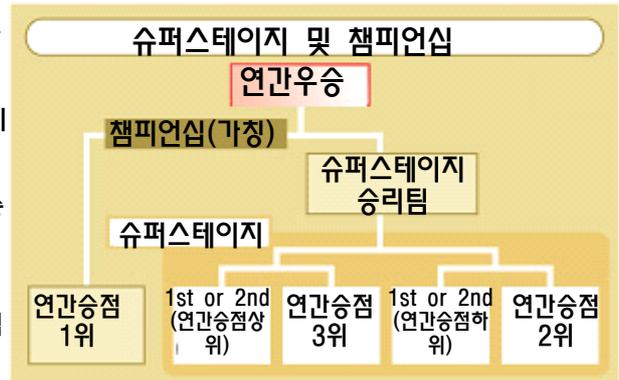
- 챔피언십 승자를 연간우승팀으로, 패자를 2위로 한다.
- 3위이하의 챔피언십 출전 팀을 제외한 연간 승점 순위로 결정한다. (AFC챔피언스리그에는 연간순위 상위 3팀이 출전한다.)

■J1, J2 교체에 대해

- J2리그전에서 1~2위 클럽은 J1으로 승격
- 리그전에서 3~6위 클럽 중, J1라이센스가 부여된 클럽은 J1승격플레이오프에 출전. 승리클럽(1클럽)이 J1에 승격
- J1리그전에서 16~18위 클럽은 J2로 강등. 단, J2리그전에서 3~6위 클럽 중, J1라이센스가 부여된 클럽이 없는 경우는 J1승격플레이오프는 개최되지 않고, J1리그전에서 16위 클럽의 강등은 없어진다. J2상위 2클럽만이 J1에 승격
- J2리그전 1위,2위 클럽에 J1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3위 이하의 순위상승은 없다.

※리그전 시합방식은 원칙으로 각 클럽 홈경기장

※상금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



AFC CHAMPIONS LEAGUE

AFC챔피언스리그 2014 조별리그 조합 결정

아시아축구연맹(AFC)는 12월 10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FC챔피언스리그(ACL) 2014 공식추첨(조합 추첨회)을 열어, 2월 25일(화) 26일(수)에 시작될 예정인 조별리그 조합이 우측처럼 결정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출전권을 얻고있는 것은 J1리그 우승인 산프레체히로시마, 2위 요코하마F마리노스, 2위 카와사키프론틀레, 남은 1팀은 제93회 일왕배전일본축구선수권대회 우승팀으로, 앞선 3팀이 우승한 경우는 리그전 4위인 세레소 오사카가 상승해 출전한다. 또 일왕배 결과에 따라 요코하마FM과 카와사키F 그룹이 결정된다.

AFC챔피언스리그 2014 조별리그 조합

<서아시아>

[그룹A]	에스테글랄(이란) / 알라얀(카타르) / 알자자이라(UAE) / 알샤바브(사우디아라비아)
[그룹B]	알파테(사우디아라비아) / 푸라드·푸르세스탄(이란) / 西地区プレーオフ勝者3-1 / ブニョドコル(우즈베키스탄)
[그룹C]	알아인(UAE) / 알이테하드(사우디아라비아) / 트라クト르사지·타프리즈(이란) / 西地区プレーオフ勝者3-2
[그룹D]	알사ద్(카타르) / 알아ハリ(UAE) /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 세바한(이란)

<동아시아>

[그룹E]	浦項스ティーラーズ(한국) / 브리람·유나이티드(태) / 山東魯能(중국) / 리그第3位(일본)
[그룹F]	サンフレッチェ広島(일본) / 센트럴코스트·마리너스(오스트리아) / FC소울(한국) / 東地区プレーオフ勝者3-1
[그룹G]	広州恒大(중국) / 第93回天皇杯全日本サッカー選手権大会優勝チーム(일본) / 全北現代모터스(한국) / 東地区プレーオフ勝者3-2
[그룹H]	웨스턴·시드니·ワンダラーズ(오스트리아) / 貴州人和(중국) / 리그第2位(일본) / 蔚山現代(한국)

[注] 그룹분계가未定の日本の3チーム(第93回天皇杯全日本サッカー選手権大会優勝チーム、横浜FM、川崎F)は、大会レギュレーションに基づき、天皇杯の結果によって下記のように組み分けられる。リーグ戦優勝の広島は、天皇杯の結果にかかわらず第1代表が確定。

1) 広島、または横浜FMが天皇杯で優勝した場合 / 그룹E: C大阪, 그룹G: 横浜FM, 그룹H: 川崎F

2) 川崎F가天皇杯で優勝した場合 / 그룹E: C大阪, 그룹G: 川崎F, 그룹H: 横浜FM

3) 広島、横浜FM、川崎F의3チーム以外が天皇杯で優勝した場合 / 그룹E: 川崎F, 그룹G: 天皇杯優勝팀, 그룹H: 横浜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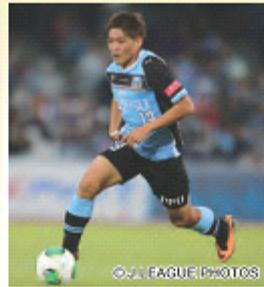
원본다운
클릭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2/vo10212.pdf>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11월, 12월 수상선수 결정

매월 리그전(J1, 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11월, 12월 수상 선수가 결정됐다. J1은 카와사키프론타레 FW大久保嘉人, J2가 감바오사카 MF宇佐美貴史. 수상한 J1선수에게는 상금30만엔, J2선수에게는 20만엔을 수여. 심사는 당해월 기르전에서 활약을 대상으로, 축구전문미디어와 J리그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1~12월 활약으로 카와사키의 3위 부상에 크게 공헌한 大久保

앵위원 선임에 대해

J리그는 12월17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비스파후쿠오카 실행위원을 大塚唯史씨에서 下田功(시모다이사오)씨로 변경하는 결 승인했다. 또, J2입회 클럽 및 J3전체 클럽에 대해서 아래 실행위원 선임을 승인했다.

실행위원변경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아비스파福岡	大塚 唯史 아비스파福岡株式会社 대표取締役社長	下田 功 아비스파福岡株式会社 대표取締役専務

실행위원퇴임(신임) J2입회클럽	
카타마레讃岐	熊野 實(くまのみのる) 株式会社カマタマーレ讃岐 代表取締役社長

실행위원선임(신임) J3입회클럽					
클럽명	선수명	선수명	선수명	선수명	
글루저야盛岡	白井 康雄(うすいやすお) 株式会社ウスイアスポートクラブ 代表取締役社長	ブラウブリッツ秋田	岩瀬 浩介(いわせこうすけ) 秋田アトールクラブ株式会社 代表取締役社長	福島ユナイテッドFC	鈴木 勇人(すずきゆうじ) 株式会社AC福島ユナイテッド 代表取締役
SC相模原	望月 重良(もちづきしげよし) 株式会社スポーツクラブ相模原 代表取締役	ツエーゲン金沢	米沢 寛(よなざひろし) 株式会社ツエーゲン 代表取締役社長	AC長野パルセイロ	丹羽 洋介(にわひろすけ) 株式会社長野パルセイロ・ アスレチッククラブ 代表取締役社長
				FC町田ゼルビア	下川 浩之(しもがわひろゆき) 株式会社ゼルビア 代表取締役
				Y. S. C. C. 横浜	吉野 次郎(よしのじろう) 株式会社YSCC横浜 代表取締役社長
				FC琉球	下地 良(しもじりょう) 琉球フットボールクラブ株式会社 代表取締役

브라우리스이키마: 12월20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회칙, 이사회에서 결정을 거쳐, 27일부로 이사장에 취임 예정

2014년도 (헤이세이 26년도) 수지예산에 대해

J리그는 12월11일에 개최한 총회에서,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수지예산을 승인했다.

단위: 백만엔

항목	2013예산 (A)	2014예산 (B)	차액 (B-A)
I 일반정미예산증감			
1. 경상증감			
(1) 경상수익			
기본재산운영이익	0	0	0
수취임회금	0	45	45
수취회비	1,171	1,288	116
협회금수익	3,814	3,814	0
J리그주관시합입장료수익	270	200	▲70
방송권료수익	4,800	4,825	25
상품권료수익	545	665	120
그 외	1,038	1,105	68
경상수익 계	11,638	11,943	304
(2) 경상비용			
① 사임비	11,280	11,686	406
리그운영경비	2,680	2,602	▲78
클럽 분배금	6,809	7,066	257
그 외	1,790	2,017	227
② 관리비	328	240	▲88
경상비용 계	11,608	11,926	318
당기경상증감액	30	17	▲14
2. 경상외수익			
(1) 경상외수익	0	60	60
(2) 경상외비용	0	0	0
당기경상외증감액	0	60	60
당기일반정미예산증감액	30	77	46
일반정미예산기수잔고	1,693	1,507	▲186
일반정미예산기말잔고	1,723	1,583	▲139
II 지정정미예산증감			
지정정미예산기수잔고	0	12	12
지정정미예산기말잔고	0	12	12
III 정미예산기말잔고	1,723	1,596	▲127

※ 백만엔미만을 반올림, 단수조절없음

※ 2014년도예산은 J3리그분을 포함

2013 J리그 연페어 플레이에 대한 반칙금

J리그는 매시즌, 연페어 플레이에 의한 반칙포인트가 많은 클럽에 대해, J리그 규약에 근거해, 반칙금을 과하고 있다. 올시즌은 아래처럼 J1 1클럽, J2 2클럽이 그 대상이 됐다. (참고: 2012시즌 J1 4클럽/J2 5클럽) 이것은 J리그 규약 제11장「제제」제157조 [연페어 플레이에 대한 반칙금] 및 제158조 [반칙포인트 계산방식]에 근거해 조치한다.

J1												
순위	클럽	반칙포인트	반칙금	시합수	경고	의견 지연 행위	경고 2회 퇴장	정지 시합 수	경고 퇴장 누적	1시합 평균 반칙포인트		
* 1	산프레체広島	-4	¥0	34	32	2	1	0	3	16	-0.12	
2	베갈타仙台	29	¥0	34	39	5	0	0	4	9	0.85	
* 3	川崎フロンターレ	38	¥0	34	45	8	0	1	3	9	1.12	
4	浦和レッズ	39	¥0	34	46	5	0	1	5	10	1.15	
* 5	横浜F・マリノス	47	¥0	34	48	8	0	1	8	12	1.38	
6	사간鳥栖	56	¥0	34	50	9	0	1	6	8	1.65	
7	알비렉스新潟	59	¥0	34	55	3	4	0	8	9	1.74	
* 8	세레소大阪	60	¥0	34	49	7	1	1	6	6	1.76	
9	FC東京	62	¥0	34	53	6	0	0	6	5	1.82	
10	제비로磐田	64	¥0	34	56	5	0	1	5	5	1.88	
11	대분토리너타	65	¥0	34	57	11	0	0	7	8	1.91	
*12	鹿島アントラーズ	66	¥0	34	51	7	2	0	8	6	1.94	
12	柏レイソル	66	¥0	34	56	3	1	0	7	5	1.94	
*14	ヴァンフォーレ甲府	73	¥0	34	50	7	1	4	9	8	2.15	
15	대궁알티에자	84	¥0	34	44	10	3	4	13	8	2.47	
16	名古屋グランパス	85	¥0	34	61	8	1	1	9	5	2.50	
17	湘南ベルマーレ	96	¥0	34	58	5	3	2	12	4	2.82	
*18	清水エスパルス	119	¥600,000	34	65	7	5	1	15	2	3.50	
합계		1,104	¥600,000		915	116	22	18	134	135	1.80	

※ 표 클럽 포인트에는 다음 정지시합수가 포함된다.

- 퇴장및퇴석에 따른 벤치금지정지시합수
- 최종R 퇴장처분에 의한 미소화 정지시합수

J2												
순위	클럽	반칙포인트	반칙금	시합수	경고	의견 지연 행위	경고 2회 퇴장	정지 시합 수	경고 퇴장 누적	1시합 평균 반칙포인트		
1	간바大阪	15	¥0	42	44	7	0	0	4	16	0.36	
* 2	松本山雅FC	31	¥0	42	45	6	1	2	5	14	0.74	
2	비셀神戸	31	¥0	42	42	8	2	2	6	15	0.74	
4	파지아노岡山	40	¥0	42	53	4	1	0	7	13	0.95	
5	몬테디오山形	60	¥0	42	61	4	1	0	8	10	1.43	
6	京都サンガF.C.	69	¥0	42	61	3	2	0	12	11	1.64	
7	카타레富山	73	¥0	42	60	7	3	0	9	8	1.74	
8	기라반츠北九州	83	¥0	42	59	10	2	1	10	7	1.98	
9	수호호리홉크	88	¥0	42	57	5	2	4	16	12	2.10	
10	제프유나이티드千葉	89	¥0	42	63	9	2	1	12	8	2.12	
10	데쓰구르트이스	89	¥0	42	62	13	2	1	12	9	2.12	
12	애媛FC	93	¥0	42	65	11	2	1	9	5	2.21	
12	로아쥬熊本	93	¥0	42	65	3	1	1	14	7	2.21	
14	横浜FC	95	¥0	42	65	3	0	2	12	5	2.26	
15	V-ファーレン長崎	97	¥0	42	66	13	3	2	12	9	2.31	
*16	栃木SC	100	¥0	42	69	14	2	1	10	6	2.38	
*17	東京ヴェルディ	103	¥0	42	69	9	1	2	12	6	2.45	
18	콘사도레札幌	110	¥0	42	71	11	4	1	14	7	2.62	
19	가이나레鳥取	112	¥0	42	80	12	2	1	12	7	2.67	
20	FC岐阜	124	¥0	42	81	8	8	0	17	8	2.95	
21	자스바쿠사群馬	136	¥400,000	42	77	10	4	3	18	6	3.24	
*22	아비스파福岡	239	¥1,500,000	42	120	14	3	4	32	2	5.69	
합계		1,970	¥1,900,000		1,435	184	48	29	263	191	2.13	

2013 J리그 체어맨 총괄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체어맨 大東 和美



2013 시즌의 J리그는 리그전 개막 20주년이라는 시기를 맞이했다.

올해 J리그는 1993년 개막 이후, 과거 20년간 쌓아올린 것을 다시한번 검증하면서, 장래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의논을 거듭한 일년이 됐다. 2015년 이후 대회방식 변경이라는 개혁안에 대한 의논은 J리그 가치를 더욱 높여, 보다 많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아주길바라는 도전이기도 하다.

더욱 새로운 노력으로서, 1999년 1,2부제 도입부터 16년째가 되는 내년 시즌, J3가 시작된다. J리그가 내건 백년구상 구현화에 또 커다란 한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일행의 탄생에,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꿈을 얘기했던 일년이기도 했다.

리그전, 리그컵전

J리그전은 산프레체히로시마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2연패를 결정짓는 전개로 막을 내렸다. 올 시즌은 디펜딩챔피언으로서 쫓기는 입장이 됐지만, J1최소실점의 견고한 수비를 기반으로 끈질기게 싸워, 타이틀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반칙포인팅도 2년 연속 최소로 작년에 이어 페어플레이상 高円宮컵을 수상해, 결과와 페어플레이 양립을 실현했던 싸움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코하마F마리노스는 마지막에 우승을 놓쳤지만 올 시즌 최우수선수에 빛난 中村俊輔 선수가 선두에 서서 공수에 분투했다. 33R 알버렉스니가 타전에서 리그 최다기록을 갱신하는 6만2632명 입장객을 모아, 리그전 평균입장수에서도 전년대비 플러스 4550명을 기록한 것은 대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클럽의 잠재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다.

한편 젊은 선수의 대두로 리그를 활성화시킨 것이 세레소오사카. 아카데미 출신선수의 재능이 개화하고, 기술력 높은 공격적인 축구라는 스타일을 확립하고 있다.

J리그에서 3번 우승을 자랑하는 주빌리아와타의 고전을, 누가 예상했을까.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가리키는 반면, J리그가 20년간 성숙해, 팀력이 대항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J2리그전에서는 감바오사카, 빗셀코베가 1년만에 J1복귀를 실현. J1승격 플레이오프를 이긴 토쿠시마보르티스는 시코쿠 첫 J1클럽이 된다. J2, JFL 승강전에서 이긴 카타마레사누키의 승격도 있어, 시코쿠축구의 더한 활성화를 기대한다.

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에서는 카시와레이슬이 14년만에 2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AFC챔피언스리그(ACL)에서도 일본세로서 4년만에 준결승 진출을 해내는 등 저력을 발휘했다.

내년 시즌은 주중 2일 일정을 가능한 한 소화하고 싶다. J리그 규약 제42조, 소위 베스트멤버 규정 개정도 결정했다. 플레이의 퀄리티향상, 특히 ACL출전 클럽의 아시아타이를 획득에 이어지도록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성장전략

20주년 시기를 맞아, 경제상황과 축구시장의 글로벌화등 호나경 변화에 대응해야하고, 장래 J리그 성장전략에 대해, 시즌 이행과 대회방식 변경을 중심으로 의논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15시즌부터 J1 대회방식을 2스테이지제 리그점넷 슈퍼스테이지와 챔피언십(모두 가정)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큰 결단에 관해서는 실행위원을 비롯한 클럽 관계자, 선수회, 지식인, 그 외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의견을 교환하고, 의논을 심화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했다. J리그 미디어 노출 기회를 증대해,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위해, 이어서 대화와 주지를 거듭해 가고싶다.

J3 클럽 탄생

J3는 내년 시즌부터 12팀으로 시작한다. 특별참가원으로서 U-22선발 팀의, 가이나레투토리, 그리고 10클럽이 새롭게 J3리그에 임회한다. 신규협회 카타마레사누키는 J2에서 시작한다. J3라이선스취득을 전제로하는 임회심사에서, 인사체계, 조직운영기준, 범무기준, 재무기준 등 경영체계 정비, 또 아카데미와 경기장 정비등을 포함한 경기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반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역행정과 관계만들기등, 임회 여정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닐것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클럽이 「우리 연고지에 J클럽을」과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을 거듭해, 다양한 기준을 해결해 임회를 마쳤다. 스타트라인에 선 각 클럽에게는 J리그 백년구상 실현, 새로운 스포츠 문화 양성에 힘을 다해, J리그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있기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강화, 아카데미

7월에 개최된 EAFF동아시아컵2013 결승대회에서는 J클럽 소속선수만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이 훌륭하게 우승했다. 많은 J리그 선수의 높은 퀄리티가 국제무대에서 다시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본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 후, 각자 소속된 J클럽에서도 활약해, 중반 J리그를 활성화시켰다.

10월에 개최된 FIFA U-17월드컵UAE2013에서도, J클럽 아카데미에 소속된 유스선수들이 많이 활약해 훌륭하게 16강까지 진출했다. 내년시즌부터 시작되는 J3 참가각 결정된 U-22 선발팀은 육성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젊은 선수의 시합기회 창출이 큰 과제가 됐지만, 이런 노력을 포함해, 이후에도 일본 축구협회의 연대해, J리그에서 선수강화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

아시아전략

작년 2월 타이프러미어리그와 제휴를 시작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리그와 제휴를 실현했다. 이후에도 ASEAN각국과 관계강화를 진행해간다. 올해는 베트남 영웅으로 불리는 레콩빈 선수가 콘사도레사포르에 가입해, 아시아진출을 생각하는 기업과 함께 J리그 시합중계로 베트남어 간판이 걸리는등, 베트남에서 J리그에 관한 보도와 리그전 방송이 많아지는 등, 높은 반향이 있었다. 아시아축구의 발전은 나아가서는 J리그 발전, 그리고 일본축구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내년 시즌부터는 새롭게 J리그 외국인선수 등록군에 제휴국가권을 만드는 것도 결정했다. 각국에 대해 J리그 20주년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시아 전체 축구의 강화, 발전에 공헌해 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계속해 간다.

부흥지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2년9개월이 지났다. 우리들 J리그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강한 결의아래, J리그 각 J클럽이 각각 부흥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6월에는 국립경기장에서 부흥지원 스페셜매치를 개최해, 수익과 모금으로 피해지해안부에 간이조명을 기증하게 됐다. 피해지 부흥을 향해,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몸을 움직여 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부흥지원활동을 계속해 간다.

내년 2014년은 FIFA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돼, 또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도 결정됐다. FIFA월드컵에서 일본대표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일본에 관심이 높다. 국내 프로리그인 J리그로서는 일본 스포츠문화를 강화해, 견인하는 입장의 하나로써, 현상황에 머물지않고 도전을 계속해, J리그의 더한 가치향상에 매진해 가고 싶다.

